

서울조합 이사장에 이충원사장



제22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이충원 선문사 사장이 당선됐다. 2월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조합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충원사장과 한용근 금영문화사사장, 조정석 (주)대원문화사사장, 반석규 반석기획인쇄사장이 경합을 벌려 직접투표로 이충원 사장이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는 1297명이 참여했으며 이충원 사장은 575표를 획득했다.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충원 선문사 사장은 1941년 생으로 충남 예산농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과에서 3년간 수학했다.

인협, 세계인쇄회의 가입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가 지난 8월 12일, 세계인쇄회의(World Print & Communication Forum)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인협은 세계인쇄회의 회원 가입과 관련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향후 세계인쇄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인쇄회의 본부 사무국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쇄협회장인 크리스 사이케스(Chris Sykes)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회원은 세계 어느 국가든 1개국에 1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 본부는 회장과 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장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임된다. 회원국가 단체장이면 상임이사 신청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장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하면 세계인쇄회의 회장이 선별하여 회의에 상정, 결정된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일본, 홍콩, 인도, 호주, 싱가포르, 유럽 26개국을 비롯해 총 50여 국가에 이른다.

단체수의계약제도 2006년까지 유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까지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



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6년까지 존속되며, 2007년부터 폐지된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일시적인 판로축소와 경영애로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45~50% 이상으로 고시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프린팅코리아 선정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한국인쇄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6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한국 인쇄관이 처음으로 설치돼 인쇄중주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유럽으로의 수출 증진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72㎡ 규모로 한국인쇄관을 꾸며 찬란한 우리의 인쇄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대한교과서(주), (주)두산인쇄, (주)연미술, 청아문화사, 홍일문화인쇄(주) 등 직접 참가업체 5개사와 간접 참여 업체 20여개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인쇄관 설치에는 정부지원 7천만원, 인쇄업계 부담금 7천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김직승 태양당인쇄사장 문화훈장



김직승 태양당인쇄(주)대표이사(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가 지난 10월20일 정동극장에서 열린 '2004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김직승 사장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인쇄업계의 권익보호와 인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인쇄기술 및 인쇄문화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인쇄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1989년부터 1992년까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와함께 '아시아 인쇄기술포럼'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1997년 대회를 국내에 유치하여 성공리에 개최해 한국 인쇄문화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렸다. 한편 9월14일 열린 '2004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박용기 삼조인쇄(주)대표이사가 대통령 상을, 김용환 창문사 사장과 정용식 한보인쇄사 사장이 국무총리 상을, 조철준 세광인쇄사 사장 등 12명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드루파 2004' 성료

세계 최대규모의 인쇄기자재 전시회인 '드루파 2004'가 지난 5월6일부터 19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52개국 1800여 업체가 출품한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인기계, 국제기계, 오성유압기계, 지엠피 등의 제조업체와 해뜰상사, 동신펁 등의 무역상사가 참가했다. 42만명이 관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천명 이상이 다녀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회에 비해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며 디지털화 된 인쇄기들이 대거 등장한 것이 눈에여 볼만한 대목이었다는 평가였다.

인쇄업 경기침체 심각

인쇄업종의 경기불황이 심각한 한해였다. 전년보다 이어져 온 내수 침체에 정치불안, 유가급등, 원자재가격 인상 등이 겹치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조사에 따르면 인쇄업종의 가동률은 62.2%로 중소제조업 중 중 최하위를 기록해 경기불황이 심각함을 입증했다.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7.8%였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제살깎기식의 덤핑수주가 극성을 부려 채산성 또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국내서도 인쇄공학박사 탄생



인쇄공학 1호 박사학위 수여자가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배출됐다. 부경대학교 인쇄공학 박사학위 과정의 이문학(42)씨가 그 주인공으로, 이씨는 논문 '솔포닐계 산중식제의 합성과 UV 경

화 잉크의 적용에 관한 연구'로 지난 7월초에 박사학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논문에 대해 이씨는 "솔포닐계 산중식제에 대한 연구는 사진 분야를 비롯한 타학문에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인쇄분야(UV잉크 적용)에서는 처음"이라며 "학위논문 자체가 인쇄분야 처음이라 선례도 없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결정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부경대학교 인쇄공학 학부과정을 졸업한 이래 1997년에 중앙대학교에서 출판학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1년부터 부경대학교 인쇄공학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문의 꿈을 키웠다.

'직지' 이름 딴 유네스코 상 제정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지난 5월28일 집행이사회를 열고 세계 기록유산보호를 권장하고 기록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 직지세계기록유산상' (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기록유산 분야에서 문화 한국의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지상은 2년에 한번씩 기록문화 보호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상금은 3만 달러이며 시상식은 청주시에서 열린다.

금상4개 등 아시아프린트어워즈서 기염

지난 11월1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프린트어워즈에서 광인사(보안 인쇄), 시스아웃(디지털프린팅 일렉트로그래픽), 해인기획(리플렛 폴더 부문/카탈로그, 서적, 잡지), 홍보컴(포스터 쇼케이스 카드 컨스트럭션 & 모바일) 등 4개 업체가 금상을 수상하고 태신인팩(임벨리쉬먼트), 하림(리미티드 에디션, 아트 리프로덕션 부문/특수인쇄), 세가그래픽스(디지털 프린팅) 등 3개 업체가 동상을 받는 등 국내 인쇄업체들이 대거 입상, 한국의 수준 높은 인쇄기술을 한껏 뽐냈다. 싱가포르 인쇄협회와 칼라한 퍼블리싱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프린트어워즈에는 13개 아시아 국가에서 1450여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지난해보다 2개 부문이 늘어난 총 26개 부문에서 경쟁을 벌였다.